■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65-300.
http://doi.org/10.17948/kcs.2019..82.265

『여지도서』의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및 신설항목의 유래

이재두(李在斗)*

목 차

1. 머리말
2.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3. 신설항목의 유래
4. 맺음말

국문초록

『여지도서』는 경진년(1760, 영조 36)에 홍문관에서 성책한 미완의 전국읍지이다. 경진년은 이 책의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의 하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 사묘, 토산, 불우, 관방 항목이 『여지도서』에서는 각각 성지, 단묘, 물산, 사찰, 진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지도서』는 도 단위만이 아니라 고을마다 채색지도를 수록하였다. 공해와 창고는 모든 고을에 신설하였다. 관직은 건치연혁, 제언・목장・관애는 산천에서 분리하여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서두의 방리(호구 포함)・도로, 말미의 한전,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 군병 11개 항목은 행정・재정・군사 관련 내용이다. 경상도 편을 제외하고는 궁실, 학교, 총묘, 명환, 제영 5개 항목을 제외시켰다. 함경도 편에는 학교와 발참을 두었다.

* 영남고 교사.

『여지도서』의 신설항목은 조선초기의 관찬 지리지보다는 『함주지』를 비롯한 사찬읍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북인계 남인인 순천부사 이수광의 『승평지』와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는 『여지도서』의 항목 신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숙종대에 편찬한 『북관지』나 『숙녕읍지』 등의 신설항목을 계승하면서 일부를 제외하였고,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사찬읍지와 숙종대에 추진한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전국 단위의 관찬읍지라 하겠다.

주제어: 『여지도서(輿地圖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읍지(邑誌)』, 읍지 편찬 사업(邑誌編纂事業), 신설항목(新設項目).

1. 머리말

원래 지리지는 『한서』 지리지,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처럼, 후대의 왕조가 이전 왕조의 정사를 편찬하면서 함께 수록하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지리지를 지리지(地理志, 地理誌), 여지승람(輿地勝覽), 여지(輿地, 輿誌), 읍지(邑誌, 邑志), 지지(地誌)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등에서처럼 주로 '지리지(地理志, 地理誌)'라고 불렀다. 1485년(성종 16)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 간행하면서 이 책을 여지, 승람, 여지승람, 동람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읍지는 16, 17세기 사찬읍지들을 편찬하면서 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관 주도로 고을마다 읍지를 편찬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읍지라 하였으며, 일부 고을에서는 여지승람, 여지지라고도 하였다. 해동읍지, 영남읍지처럼 전국이나 도 단위의 지리지도 읍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읍지는 조선후기 지리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읍지는 일반적으로 서두에 지도를 싣고, 이어서 해당 고을의 지리지를 수록하였다. 고을 단위의 개별읍지를 도 단위로 모아 놓은 것은 도별읍지, 도지(道誌)이며, 『여지도서』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모아놓은 것은 전국읍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지리지를 지역적 범위에 따라 여지(輿誌)·통지(統志)와 읍지(邑誌)로 구분하였다. 여지(통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수록하기 때문에 번잡한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게 되어 상세하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읍지는 고을을 단위로 하여 작성하므로 널리 채집하여 빠짐없이 다 수록하여 한 고을의 실정을 상세히 알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1] 그러나 현존하는 개별읍지를 보면, 고을의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하여 내용이 풍부한 경우도 있지만,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해당 고을 편을 그대로 베끼거나, 이 두 책을 단순히 수정증보하면서 해당 고을의 읍지라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초기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성과물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1485, 1531)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여러 차례의 수찬과 인간 과정을 거쳤다. 1481년(성종 12) 제1차본(초고본), 1485년(성종 16) 제2차본(초간본), 1499년(연산 5) 제3차본, 1531년(중종 26) 제4차본(신증본)이 그것이다.[2] 초고본의 내용은 사림 세력인 김종직 세력이 대폭 수정하여, 『동국여지승람』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시행하려는 강한 의식이 작용한 것이었다.[3] 한편, 『동국여지승람』의 신증 시기는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던 기묘사림 세력이 위훈삭제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뒤, 남곤·심정을 중심으로 한 공신계 훈구 세력 집권기를 거쳐 정권이 김안로 일파에게로 넘어간 시기였다.[4] 각 고을별 목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5]

---

1)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3,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87, 18-19면.

2) 정의성, 「동국여지승람의 서지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6, 74-81면.

3)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28-29면.

4)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34-35면. 이상은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제24집, 조선사연구회, 2015, 16면에서 재인용.

5) 이재두,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제60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2017, 249면 주 32). 이 논문에서는 일부 고을에만 수록한 창고를 배제하였고, 능묘와 총묘를 분리하였으나, 능묘가 능침과 총묘를 합한 것으로 보면 이들은 같은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창고를 추가하고 능묘, 능침, 총묘를 능묘(능침, 총묘 포함)로 합치면 23개 항목이다.

'강역(혹은 강계)', ①건치연혁(속현・진관・관원・토관 포함), ②군명, ③성씨, ④풍속, ⑤형승, ⑥산천, ⑦토산, ⑧성곽, ⑨관방, ⑩봉수, ⑪궁실, ⑫누정, ⑬학교, ⑭역원, ⑮창고, ⑯교량, ⑰불우, ⑱사묘, ⑲능묘(능침, 총묘 포함), ⑳고적, ㉑명환, ㉒인물(우거・유우・효자・효녀・열녀 포함), ㉓제영

실제 ⑮창고는 13, ⑲능묘는 16, ⑲능침은 1(개성부), ⑲총묘는 34, ⑯교량은 69, ⑪궁실은 72, ⑨관방은 82개 고을에만 수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임진왜란 직후인 1611년(광해군 3) 목판본으로 복각하여 널리 보급하였다.[6]

『여지도서』는 지도와 지리지로 이루어진 55책의 전국읍지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지지뿐만 아니라, 지도도 강조하였다.[7] 각 고을의 읍지는 비슷

원 번호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의 대체적인 수록순서를 의미하며, 고을에 따라서는 수록할 내용이 없으면 해당항목 자체를 제외하였다. 寓居・流寓・효자・효녀・열녀를 ㉒인물의 부속항목으로 보았듯이, 속현・진관・관원・토관도 ①건치연혁의 부속항목이므로 수록항목의 합계에서는 제외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도 상, 하는 國都, 城郭, 宮闕, 壇廟, 苑囿, 文職公署, 武職公署 순이고, 한성부에는 市街와 忠義, 개성부 상, 하에는 部坊, 公廨 항목을 더 수록하였다.

정의성은 서거정의 서문을 통해 현전하지 않는 초고본의 항목이름을 추정하였다. 초고본의 누대와 사찰을 신증본에서는 누정과 불우로 바꾸고, 초고본의 명산과 대천은 산천으로, 高城과 城砦는 성곽으로, 역참과 원우는 역원으로, 廟社와 祠墓는 祠廟로 변개하였으며, 군명과 봉수를 신설하였다고 하였다. 정의성, 「新增東國與地勝覽의 項目體裁와 '題詠'에 대한 考察」,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1997, 21-22면. 그러나 이들 항목이름이 초고본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4년 뒤인 1485년(성종 16) 초간본부터는 항목이름이 신증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고본인 『東國與地勝覽』(가람古貴 915.1-N659d)에서는 卷11 楊州牧, 坡州牧, 高陽郡, 永平縣, 抱川縣, 積城, 交河縣, 卷12 長湍都護府, 江華都護府, 卷13 豊德郡, 朔寧郡, 麻田郡, 漣川郡, 喬桐縣의 수록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검색, http://kyujanggak.snu.ac.kr(2018.12.16 검색).

6) 『동국여지승람』 권 11(가람古貴 915.1-N659d) 파주목 인물에는 연산군의 외조부인 윤기견(尹起畎)이 실려 있었으나 신증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동국여지승람』을 신증하면서 초간 때 수록한 인물을 빼버린 경우도 있고, 본조와 신증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광해군은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1387년(우왕 13)에 사망한 이집(李集)이 조선에 들어와 벼슬하였다고 기술한 『여지승람』 광주부 기록이 잘못되었다며 개정을 요청하자 들어주었다. 이집은 이덕형의 8대조이다.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26일 병인 참고. 그 결과 광주목 인물 기록은 그대로 둔 채, 제영 다음에 변오(辨誤) 항목을 두어 고려 이집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추기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광주목 변오. 정대영, 「『杞人憪商量』, 19세기 초 洪羲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문화』 제72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490면에서 재인용.

7) 최영희, 「해설」, 『輿地圖書』 上,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3, 1면 참고.

한 규격의 인찰 정간지를 이용하여 각 면당 10행 20자로 정서하였으며, 1개, 혹은 여러 개의 개별읍지를 모아 동일한 크기로 오침선장(五針線裝)하였다.

『여지도서』는 활자나 목판으로 간행하지 않은 필사본으로 각 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모아 책으로 묶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빠진 고을이 있고, 도별, 혹은 고을별로 수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정・보완・정본화하여 공식적인 간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미완의 전국 지리지'이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의 지방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필수자료이듯이, 『여지도서』는 양란 이후 조선후기 사회, 특히 18세기 중엽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9]

『여지도서』 경기도 이천 편에는 지도 뒷면에 목록을 수록하였는데 모두 35개 항목이다.[10] 언양현 읍지인 『헌산지(巘山誌)』(1760)의 홍문관범례 등은 『여지도서』의 표준양식, 곧 정확한 목차와 수록항목, 인물 수록기준 및 상급기관으로 올려 보낸 읍지의 권수 등을 확인시켜준다.[11] 『헌산지』에는 헌산여지승람서에 이어, 구간본 범례 12조, 홍문관범례 35조, 두 번에 걸쳐 추가된 범례 5조가 실려 있다. 처음 홍문관에서는 35개의 읍지 수록 항목을 내려 보냈지만, 경상도에서는 두 차례나 더 추가하라는 지시를 내려, 경상도편의 개설항목은 모두 40개였다.[12]

그동안 『여지도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축적해 왔다.[13] 최근에는 『여지도서』 경상도의 누락읍지 두 책과 전라도의 누락읍지 세 책은 분실한 것이며, 이 다섯 책을 포함하면 원래는 60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신증

8)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446면, 458면 참고.
9) 같은 글, 437면.
10) 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상, 탐구당, 1973, 129면. 이천 편 목차에서 없다고 표시한 ⑪능침, ⑲목장, ⑳관애, ㉑봉수, ㉕진보는 본문에서 항목이름 자체까지 제외시켰다.
11) 성범중・엄형섭 역, 『역주 울산지리지』 Ⅰ,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259-379면, 432-451면.
12) 이재두, 앞의 글, 241-272면.
13) 연구사 정리는 같은 글, 244-245면; 변주승, 앞의 글, 437-439면 참고할 것.

동국여지승람』의 차례를 기준으로 하여 고을별 읍지 수록순서도 바로잡혔다.[14] 그러나 『여지도서』의 편찬시기나 신설항목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자마다 편찬시기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록항목의 구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신설항목의 유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지도서』의 정확한 편찬시기와 수록항목의 구성 및 신설항목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읍지 편찬사업의 일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1) 정확한 편찬시기

『여지도서』 영인 당시 해설에서는 편찬시기를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영조 41) 사이에 진행된 장기간의 읍지 편찬사업의 일환이었음을 밝혔다. 해제자는 "各道邑誌의 收聚는 王命으로 행하여졌고, 더욱이 英祖 33年에서 41年 사이의 長期間의 일이며, 그간 數次 修正되어 王이 親覽하였으니 그 輿地圖書는 完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缺冊이 있는 本 輿地圖書는 內入된 輿地圖書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해제자는 영인 간행한 『여지도서』가 1760년(영조 36) 이후 1764년(영조 40) 사이에 수집 편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15]

> 輿地圖書의 內容으로 그 編成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輿地圖書의 各邑誌의 編成日字를 明記한 것은 冊2 加平邑誌 末尾의 『乾隆二十五年十月 日』이라는 附記인데 乾隆 25年은 英祖 36年에 해당한다. 各邑誌의 戶口·田結·賦稅關係의 帳籍은 거의 『己卯帳籍』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다만 戶口帳籍에서 京畿道 衿川縣이 康熙 甲子帳籍(肅宗 10年), 忠淸道 槐山郡이 丙子帳籍(英祖 32年)으로 되어 있는

14) 이재두, 「『여지도서』의 누락읍지 보완과 수록순서 보정」, 『전북사학』 제54호, 전북사학회, 2018a, 103-131면.
15) 최영희, 앞의 글, 3-4면.

데, 이는 己卯帳籍 以前의 式年調査의 것을 그대로 上送한 것으로 보아지며, 例外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式年으로서의 己卯年은 英祖 35年(1759)이다. 이에 덧붙일 일은 高宗 8年(1871) 撰인 淳昌邑誌(撰者 韓宗岳)의 舊邑誌序에 『惟我聖上臨御三十四年, 在戊寅, 命下列邑修上邑誌』라는 記錄인데, 이 해는 앞서 든 洪良漢의 奏請에 의하여 各道 邑誌를 上送케 한 英祖 33年보다 1年의 差異가 있다. 이는 아마도 이때의 下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輿地圖書 中의 郡邑의 陞降을 中心으로 그 編成의 時期를 살펴보면,

道別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典會通(1863)	陞降時期	備考
忠淸道	忠州牧	忠原郡	忠州牧	英祖 31-英祖 40 (1755-1764)	英祖代에 세 차례의 陞降이 있었음
全羅道	靈光郡	靈光縣	靈光郡	英祖 31-英祖 40 (1755-1764)	仁祖 7-16年間과 이 期間은 靈光縣이었음
慶尙道	咸陽郡	咸陽都護府	咸陽郡	英祖 5-正祖 12 (1729-1788)	이 期間만이 咸陽都護府였음
江原道	春川都護府	春川縣	春川都護府	英祖 31-英祖 41 (1755-1765)	이 期間만이 春川縣이었음
黃海道	瑞興都護府	瑞興縣	瑞興都護府	顯宗 12-英祖 38[16] (1671-1786)	顯宗 12年 特命 百年降縣이었음
黃海道	長淵縣	長淵都護府	長淵縣	光海君 15-英祖 40 (1623-1764)	光海君 15-英祖 40年까지 都護府였음

忠州(忠原)·靈光·春川의 경우 위 표와 같이 각기 陞降의 期間이 英祖 31年에서 41年사이인데 이는 輿地圖書의 그것과 一致한다. 특히 長淵은 英祖 40年 都護府에서 縣으로 降等된 것을 勘案한다면 오히려 英祖 40年 以前까지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要컨대 各道 邑誌의 上送을 命한 것이 英祖 33年이니 本 輿地圖書의 各邑 邑誌는 英祖 33年에서 41年間에 이루어진 것이 確實하며, 더 具體的으로 살피면 己卯帳籍으로 볼 때 대부분이 英祖 36年 以後의 修輯 編成임을 알 수 있다.

(밑줄은 필자)

그러면, 영인 간행한 『여지도서』의 편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16) 정조 10을 잘못 표기한 것임.

까? 배우성은『여지도서』의 해제에서 밝힌 것처럼 각 고을들이 대체로 기묘년 호구자료에 토대하고 있고, 가평읍지 말미의 '건륭 25년'을 근거로 1760년(영조 36)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제와 달리 이 책이 1765년(영조 41) 서명응(徐命膺)이 영조에게 올린『여지도서』원본에 가까우며, 1760년본『여지도서』가 전국 모든 고을을 망라한 완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17] 그의 연구를 통해 영인본『여지도서』는 영조가 열람한 미완의 전국읍지 원본이며, 편찬시기가 1760년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여지도서』연구논저들을 보면, 편찬시기를 1760년경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18] 영조 36년(1760) 이후,[19] 18세기 중엽,[20] 18세기 중반,[21] 영조 연간,[22] 1765년,[23] 1765년경(영조 41),[24] 영조 41년(1765),[25] 1757-1765년,[26] 18세기 중・후반,[27] 18세기[28]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17) 배우성,「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한국학보』제22권 4호, 일지사, 1996, 157-158면;『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140-141면.
18) 허원영,「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사림』제38호, 수선사학회, 2011, 10면 주 14); 이재두, 앞의 글, 2017, 243면; 정대영,「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규장각』제5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09면; 이재두, 앞의 글, 2018a, 108면.
19) 변주승, 앞의 글, 437면.
20) 김우철,「『여지도서』'성씨'조의 검토」,『한국사학보』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613면; 전종한,「'소규모 지역'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재현과 지역지의 서술 체재에 관한 연구」,『문화역사지리』제24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18-19면.
21) 이철성,「『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한국사학보』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533면.
22) 정대영,「영조연간 전국지리지『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서지학연구』제68집, 한국서지학회, 2016, 109면.
23) 김지영,「禮敎의 가늠자—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風俗'조의 검토」,『규장각』제52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8면.
24) 이성무,「한국의 관찬 지리지」,『규장각』제6집, 서울대 규장각, 1982, 147면.
25) 박인호,『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 1996, 178면.
26) 양보경, 앞의 글, 101면; 정치영,「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성」,『문화역사지리』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81면; 양진석,「18세기말 전국 지리지『해동여지통재』의 추적」,『규장각』제43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7면; 이재두,「조선 후기『대구읍지』편찬과 사족의 대응—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중심으로—」,『영남학』제29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b, 350면.
27) 전종한, 앞의 글, 19면.
28) 김태웅,「『신증동국여지승람』과『여지도서』의 邑史 자료 비교・활용—전라도를 중심으로」,『규

게 현실이다. 『국역 여지도서』에서도 편찬시기에 대한 검토 없이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영조 41) 사이에 편찬한 지리서라고 밝히고 있다.[29] 규장각 지리지 종합정보 또한 1760년경으로 밝힌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18세기 중엽, 18세기 중반, 영조 연간, 영조대라 하거나, 1765년경(영조 41), 1757-1765년, 심지어는 막연히 18세기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방동인은 『여지도서』의 미진한 점으로 전국 고을의 10%가 결질(缺帙)되었다는 점과 결책한 연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 책이 1754년부터 1770년에 이르는 15-6년간에 걸쳐 수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30]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여지도서』를 1760년에 편찬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지도서』「강도부지」 강화부 관안의 마지막 인물인 유수 원경순(元景淳)과 경력 윤광주(尹光柱)는 모두 1759년(기묘) 6월에 부임하였다. 원경순이 교체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해인 1760년 10월이다.[31] 『여지도서』에는 경기도 여주의 신경・이덕승・신목이 복호되고, 여주의 신석효와 민백겸처 이씨, 연천의 열녀 이씨, 이천의 열녀 박씨가 정려된 해를 1760년(경진)이라 기록하였다.[32] 경기도 과천・남양・진위의 대동 항목은 1759년(기묘) 가을과 1760년(경진)에 거둔 쌀이 기록되어 있다.[33] 경기도 여주목은 '강역'에 진관이 1750년(당저 경오) 광주에서 돌아왔다가 1760년(경진) 다시 광주 속읍이 된 사실을 기재하였다.

강원도 관찰영 관직에서 중군(中軍)이 금상 경진년 토포사를 겸임하게 하였다는 기록, 관직의 도내 관원에서 금상 경진에 김효대(金孝大)가 감사가 되었을 때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찰사가 목사를 겸하도록 하였다는 기록, 공해에 실린 1760년 7월 김효대가 지은 대은당(戴

장각』 제5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65면.

29)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1-50, 디자인흐름, 2009, 각 권 뒤표지.

30) 방동인, 『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2001, 281-285면.

31)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5월 23일 임인.

32)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3, 디자인흐름, 2009, 100면, 179면, 220면.

33)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2, 디자인흐름, 2009, 210면, 252-253면, 308면.

愚堂) 영건사적과 평릉찰방 유채(柳綵)가 지은 상량문, 그리고 원주목 건치연혁에 1760년 감사가 가족을 데려왔기 때문에 판관으로 강등하고 목사가 규정에 따라 순찰사를 겸임한 사실 등은 이 책의 편찬시기를 알려준다.[34]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영지 행영의 공해에는 건륭 경진년에 절도사[北兵使] 이은춘(李殷春)이 영소당(永嘯堂)을 새로운 목재로 고쳐 세운 기록이 나온다.[35]

영조대에는 읍지 편찬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이 지대하였다. 1757년(영조 33) 정축년 중앙 정부에서는 홍문관을 통해 각 고을의 읍지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1758년 무진년 말까지 각 도에서 올라온 '팔도읍지 신건'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36] 1759년(영조 35) 기묘년에도 읍지를 계속 수집하였다. 당시까지 내려온 공문에는 수록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각 고을 업무담당자에게 위임하였다.[37] 언양현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항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언양현감 김천상(金天相)은 진사 서석린(徐錫麟)에게 읍지 집필을 맡겨 1757년 동지[南至]에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현 편을 크게 보완한 『헌산여지승람』을 완성하여 조정에 올려 보내고, 한 권은 요람에 대비하였다.[38] 1757년부터 1759년 상반기까지는 『여지도서』 유형의 수록항목을 개발하기 이전이다. 이 시기에 편찬한 읍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해당 고을 편이나, 사찬읍지, 혹은 숙종대에 추진한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의 결과물을 수정・보완하는 정도였다. 영조대의 제1차 읍지 편찬사업 기간이라 할 수 있다.[39]

1759년(영조 35) 기묘년 하반기에는 읍지 편찬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홍문관은 읍지의 수록규정, 즉 표준양식을 완성하여 각 고을에 하달하였

34)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15 강원도 1, 디자인흐름, 2009, 33면, 36-44면, 69면.
35)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27 함경도 1, 디자인흐름, 2009, 96면.
36) 전라도 순창군에서도 읍지의 내용이 번잡하다며 개찬하도록 하는 명을 받고 재차 만들어 올렸다. 재차 만들어 올린 것은 李濈의 발의와 서명응의 범례에 따른 것이다. 배우성, 앞의 책, 134면.
37) 「헌산여지승람서 추록」, 『헌산지』.
38) 「헌산여지승람서」, 『헌산지』.
39) 이재두,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규장각』 제5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b, 256면.

다. 1759년(영조 35) 12월 23일 수찬 김응순(金應淳, 1728-1774)이 읍지의 인물 수록 기준을 엄격히 하자고 제안하기 이전부터이다.[40] 『김산군읍지』(상백고 915.15-G336)는 김응순의 제안 이전에 편찬한 읍지이다. 권말의 표지 안쪽에 쓰여 있는 "건륭 24년 12월 초8일(乾隆 二十四年 十二月 初八日)"은 김응순의 제안 이전에 이미 홍문관범례 35조가 내려졌으며, 그 시기는 1759년 후반이었음을 알려준다. 『김산군읍지』는 『여지도서』 김산군 편의 초고본으로, 이 읍지를 수정·보완하여 『여지도서』 김산군 편을 완성하였다. 완성시기는 다음 해인 1760년이다.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편에서 확인한 경진년은 건륭 25년으로 1760년(영조 36)이다. 『여지도서』에는 경진년 이후 추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여지도서』는 홍문관 규정에 따라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감영에서 수집해 올린 것을 1760년 홍문관에서 성책한 미완의 전국읍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수록항목의 구성

1759년 하반기 홍문관 규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경상도에서는 목차나 수록항목에 변화가 있었다.[41] 감영에서는 수록항목에 따라 완성한 개별읍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기준에 미흡하거나 지나치면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여지도서』는 도별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도내 각 고을 사이에는 항목의 수록기준이나 서술방식이 일정해졌다. 『여지도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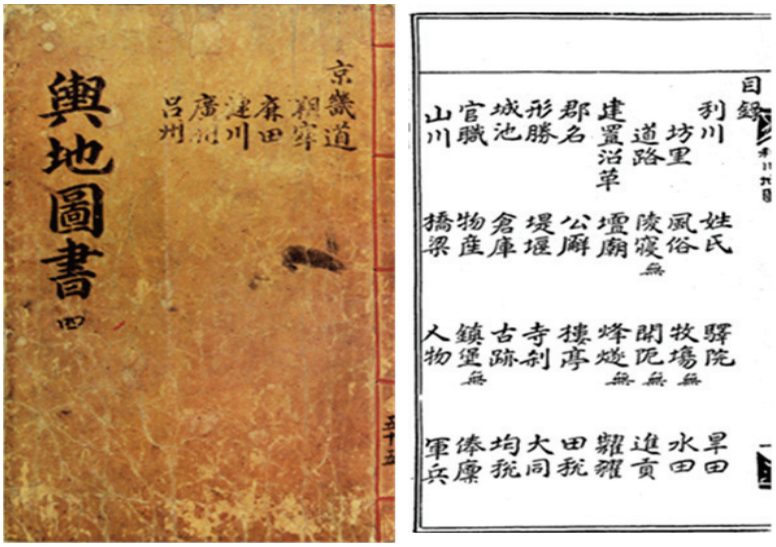
40)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년) 12월 23일 기해.

41) 「헌산여지승람서 추록」, 『헌산지』.

42) 『헌산지』 영관범례; 추입 범례; 영관 첨입 범례. 경상도에서 추가한 5개 항목은 해당항목 앞 항목의 원번호 다음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였다. 밑줄 친 항목 가운데 +1은 1차로 추가된 '추입 범례', +2는 2차로 추가된 '영관 첨입 범례'이다. 이재두, 앞의 글, 2018a, 105면 주 9); 앞의 글, 2017, 256면. 양보경과 양진석은 『여지도서』의 목차를 열거하면서, 경상도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⑫+2塚墓와 ㉕+1名宦은 포함시켰으나, ⑪+2궁실·⑪+1학교·㉖+1제영은 빠뜨렸다. 특히 양진석은 疆域을 독립항목으로 보고 ①坊里와 ②道路를 그 부속항목으로 보았다. 양보경, 「18세기 지리서·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응용지리』 제20호,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1997, 23

'지도', '강역', ①방리(호구 포함), ②도로, ③건치연혁,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관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⑪+2궁실, ⑪+1학교, ⑫단묘, ⑫+2총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⑱1발참, ⑲목장, ⑳관애, ㉑봉수, ㉒누정, ㉓사찰, ㉔고적, ㉕진보, ㉕+1명환, ㉖인물, ㉖+1제영, ㉗한전, ㉘수전, ㉙진공,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㉟군병

*밑줄 친 것은 일부 고을에만 개설한 항목임.



『여지도서』의 표지와 목차

홍문관범례에서는 '지도'와 '강역'을 비롯하여, ①방리, ②도로, ⑥성지, ⑦관직, ⑧산천, ⑪능침, ⑭제언, ⑱역원, ⑲목장, ⑳관애, ㉑봉수, ㉕진보, ㉖인물,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18개 항목에는 별도의 수록규정을 제시하였다.[43] 『헌산지』는 여러 차례 내려온 홍문관 공문과 감영 공문에 따라 1760년 완성한 언양현 읍지이다. 1759년부터 추진한 읍지 편찬

면; 양진석, 앞의 글, 57면.

43) 이전의 글에서 ㉑봉수를 빠뜨려 17개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㉑봉수의 수록규정은 '북쪽으로 아무 봉수에 응하고 남쪽으로 아무 봉수에 응하는지 적는다. 동쪽과 서쪽도 같다.'이다. 이재두, 앞의 글, 2017, 252-253면.

사업의 결과물이며, 『여지도서』 언양현 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44] 1760년 성책한 『여지도서』는 이미 성책 당시부터 수록규정인 홍문관범례 35개 항목에 균열을 보였다. 규정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⑪+2궁실, ⑪+1학교, ⑫+2총묘, ㉕+1명환, ㉖+1제영 5개 항목을 제외시켰지만, 경상도에서는 두 차례나 공문을 내려 이들 항목을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함경도 편에는 ⑪+1학교와 ⑱1발참이 더 들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경상도 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읍지들은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교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흡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제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환과 학교도 그대로 수록해야 하지 않을까? 원래대로 능침과 구분하여 총묘를, 공해와 구분하여 궁실을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반영한 것이 『여지도서』 경상도 편이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내용이 풍부해졌다. 경상도에서는 홍문관의 규정에 따라 읍지를 편찬하되, 고례를 존중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항목을 그대로 수록하면서 수정증보하였다.[45]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 사묘, 토산, 불우, 관방을 각각 ⑥성지, ⑫단묘, ⑯물산, ㉓사찰, ㉕진보로 바꾸었다. 항목이름은 읍지의 유형과 편찬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및 도별 '지도'만 있었지만, '채색지도'를 도 단위만이 아니라 개별 고을까지 수록하였다.

다. ⑮창고는 13개 고을, 14곳만을 수록하였으나, 모든 고을로 확대하였다.

라. ⑦관직은 건치연혁, ⑭제언・⑲목장・⑳관애는 산천에서 분리하여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46]

---

44) 『헌산지』의 ⑦관직에는 인리 19인, 지인 7인, 관비 사령 12명, 관노 13구, 관비 10구에 이어, 다시 인리 24인, 서원 15인, 지인 14인, 관비 11구, 緣坐婢 2구가 더 수록되어 있다. ⑭제언은 『여지도서』에서는 釜堤의 경우 '在縣北 19里' 식으로 나오나, 『헌산지』에는 '在上北面' 식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 『헌산지』에 수록한 ⑭제언의 홍문관 규정에는 명칭과 둘레가 몇 장이며, 깊이가 몇 척인지를 적도록 하였다. 읍치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할 것인지, 방리로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45) 이재두, 앞의 글, 2017, 259면.

마. 72개 고을 정도에만 실린 궁실을 ⑬공해로 항목이름을 변경하여 모든 고을로 확대・개편하였다. 전(殿)・객관・동헌만이 아니라 기타 관아 건물도 나열하였으며, 대체로 시문은 생략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궁실은 대부분 시문과 함께 수록하였는데, 신증한 경우에는 시문 없이 건물이름만 기록하기도 하였다.

바. ①방리, ②도로, ㉗한전, ㉘수전, ㉙진공,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㉟군병 11개 항목은 행정, 재정, 군사 항목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신설항목으로 다른 항목과 달리 몇 자(字)씩 내려서 기록하였다.

사. 경상도 편은 ⑪+2궁실, ⑪+1학교, ⑫+2총묘, ㉕+1명환, ㉖+1제영 5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함경도 편은 ⑪+1학교와 ⑱1발참을 수록하였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항목 비교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변경	⑧성곽, ⑱사묘, ⑦토산, ⑰불우, ⑨관방	⑥성지, ⑫단묘, ⑯물산, ㉓사찰, ㉕진보
모든 고을 확대	전국 및 도별 '지도'	도별 및 고을별 '채색지도'
	⑪궁실	⑬공해
	⑮창고	⑮창고
분리	①건치연혁(관원 포함)	③건치연혁, ⑦관직
	⑥산천	⑧산천, ⑭제언, ⑲목장, ⑳관애
신설		①방리, ②도로, ㉗한전, ㉘수전, ㉙진공,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㉟군병
제외	⑪궁실, ⑬학교, ⑲총묘, ㉑명환, ㉓제영	경상도 편에는 모두 반영. 함경도에는 ⑪+1학교와 ⑱1발참[47] 수록.

*밑줄 친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던 항목으로 신설항목이다.[48]

46) 이건식, 「황윤석의 1775년 전국 지리지 편찬 범례의 특징 분석—1775년 무렵 홍문관의 전국 지리지 편찬 관례의 복원 시도」, 『지명학』 제14집, 한국지명학회, 2008, 114면, 116면, 120면, 122면 참고.

47) 원번호 다음의 숫자는 같은 항목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거나, 일반적인 수록 순서와 다른 경우 앞 항목의 다음에 수록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48) 양보경은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이한 항목으로 '지도', ①방리, ②도로, ⑭제언, ⑰교량, ㉙진공,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㉟군병 ㉗한전, ㉘수전을 신설하였음을 들었으나, ⑰교량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수록한 항목이다. ⑦관직, ⑲목장, ㉚조적 또한 신설항목이고, ⑬공해와 ⑮창고도 신설항목이라 할 수 있다. 양보경, 앞의 글, 1987, 24

『여지도서』에는 고을마다 '채색지도'와 '강역'을 실었으며, 해당 항목이 없으면 항목이름 자체도 생략하였다. 건치연혁 앞에 위치한 '지도'·①방리(호구 포함)·②도로는 국가의 행정력이 증대되어 각 고을의 구체적인 지리 정보와 인구 파악을 중시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는 고을별로 건치연혁을 가장 먼저 수록한『신증동국여지승람』과는 다른 방식이다.[49] 아울러 마지막에 위치한 신설항목은 지방 행정, 농업 생산 증대, 부세 운영, 국방력 강화 등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㉖+1제영과 여러 항목에 걸쳐 실었던 시문은 분량만 많이 차지하고, 국가 운영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비실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경상도 편에서 남겨둔 ⑫+2총묘는 ⑪능침에, ⑪+2궁실은 ⑬공해에 수록할 수 있는 항목이다. ⑫단묘에는 향교의 문묘를 비롯하여 서원도 수록할 수 있으므로 향교만을 수록하는 ⑪+1학교를 굳이 독립항목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여지도서』경상도 편이 다른 지역과 다른 핵심은 ㉖인물의 앞뒤에 배치한 ㉕+1명환, ㉖+1제영 정도라 할 수 있다.『여지도서』경상도 편은 각각 인물 36%, 충신 35%, 효자 31%, 열녀 29%일 정도이다.[50] 11개 고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여지도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지역 사족들이 읍지에 수록할 인물에 대한 관심과 선정과정에의 참여욕구가 높았기 때문이다.『여지도서』에서는 대부분『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인물들을 그대로 수록하면서『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증'을 '구증'으로 고치고, 이후 새로 추가한 '신증'과 구분하였다.

『여지도서』내에서 한시와 기문 또한 경상도가 각각 48%, 64%를 차지할 정도 압도적이다. 경상도 편의 한시 작가들로는 서거정 71, 이황 63, 김종직 56, 정이오 24, 유호인 23, 이첨 20, 김극기 17, 김안국 14, 이규보 14, 이행 13편순이다.[51] 특히 이황의 시는 19개 고을에 고르게 분포하는데,『신증

면 참고.

49) 서거정은 한 고을의 흥폐를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혁을 가장 먼저 수록한다고 밝혔다. 서거정,「『동국여지승람』서문」,『신증동국여지승람』권수.

50) 변주승, 앞의 글, 447-452면.

51) 같은 글, 452-456면.

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 '신증'한 것이다. 김종직과 김안국의 시도 신증한 경우가 많다.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에서는 ㉖+1제영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항목에 걸쳐 시문을 수록하였다. 특히 함경도는 학교 항목을 그대로 두고, 발참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여러 항목에 걸쳐 시문을 다수 수록하였다. 시문은 경상도 다음으로 많은 28%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이안눌 40, 유득일 14, 홍창한 12, 이식 11편순이다. 대부분 17-18세기 이 지역에 부임한 관리들의 작품들이다.[52] 창고 또한 이름만이 아니라 위치와 보관 수량을 명시하였으며, 진공도 매월 상납할 품목과 수량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한전과 수전은 실결수만을 기재하였다.

경기도 광주목, 충청도 공주목, 전라도 나주목, 평안도 평양부는 시문을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이들 고을은 동리별이나 면별로 거리와 호구를 파악하고 있어 읍지에서 방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 홍문관범례의 방리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홍문관범례의 ①방리 규정에는 동쪽으로 아무 방(方=坊: 필자 주) 아무 리가 관문에서 몇 리 떨어져 있는지, 어느 해 장적에 의거하여 편호가 얼마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등을 적도록 하였다.[53]

『여지도서』 ①방리의 호구 기록이 동리(洞里)별인 경우는 충청도・강원도・평안도의 모든 고을과 경기도의 11개 고을(포천・교하・가평・장단・풍덕・진위・양성・연천・광주・양근・죽산) 및 황해도 곡산부와 문화현이다. 전라도와 함경도의 모든 고을과 경기도 17개 고을 및 황해도 21개 고을은 방・면・사(坊面社)별로 호구를 기록하였으며, 경상도와 경기도의 교동부・영종진・금천현은 고을별 호구 기록이다.[54] 도별로 한두 고을을 선정하여 방리가 차지하는 분량과 고을 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시문 수록 여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2) 같은 글, 456-457면.
53) 『헌산지』 영관범례 방리.
54) 이재두, 앞의 글, 2017, 255면 주 40); 양보경, 앞의 글, 1987, 103면.

■ [표 2]『여지도서』 도별 방리 분량 및 시문 수록 항목

도	고을	전체 분량	방리 면수	방리/전체 비율	거리와 호구	시문 수록 항목
경기도	광주목	26면	12면	46.15%	동리별 거리와 호구	없음
충청도	공주목	50면	22면	44.00%	동리별 거리와 호구	없음
	청주목	94면	40면	42.55%	동리별 거리와 호구	산천, 누정, 고적
경상도	대구부	29면	1.2면	4.14%	면별 거리와 고을별 호구	누정, 제영
	경주부	120면	1면	0.83%	면별 거리와 고을별 호구	궁실, 단묘, 역원, 누정, 사찰, 고적, 제영
전라도	나주목	36면	8면	22.22%	면별 거리와 호구	없음
	순천부	22면	2.2면	10%	면별 거리와 호구	없음
황해도	해주목	45면	4.1면	9.11%	방(坊)별 거리와 호구	단묘, 공해, 누정, 고적
	서흥현	20면	2면	10.00%	방(坊)별 거리와 호구	없음
강원도	원주목	49면	7면	14.28%	면별 거리와 동리별 호구	단묘, 공해, 누정
함경도	함흥부	58면	4면	6.89%	사(社)별 거리와 호구	학교, 공해, 누정
평안도	평양부	57면	20면	35.09%	동(洞)별 거리와 호구	없음

『여지도서』 경상도 편의 ①방리는 면별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만을 적고 고을별 호구만을 파악하여 방리의 분량을 과감히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항목에 걸쳐 많은 '시문'과 ㉖+1제영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모든 항목을 수정증보하면서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의 고례(古例)를 고수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달리 『여지도서』 경상도 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리・식생・문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재정・군사 등 통치 정보까지 증보하였다. 통치 정보만이 아니라 문화적 성격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이에 비하면, 경상도 이외의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화 정보를 제외하면서, 지리・식생 정보에 행정・재정・군사 등 통치 정보를 위주로 증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55]

영관내 각조정식(營關內 各條定式)은 홍문관의 (1)인물 수록규정에, (2)명환, (3)학교, (4)제영의 수록규정을 추가한 것이다.[56] 1759년 12월 23일 김응순

55) 김백철, 「고종대 읍지의 연대분류 시론—규장각 자료의 서지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49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83면 참고.

이 영조에게 각도 읍지의 인물항목이 난잡하다며 수정하도록 요청하여 허락받은 규정이 바로 영관내 각조정식의 (1)인물 관련규정이다. (1)인물 수록규정이 11가지나 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2)명환, (3)학교, (4)제영은 경상도 편에 추가한 ⑪+1학교・㉕+1명환・㉖+1제영 규정이다. ⑪+2궁실과 ⑫+2총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차 추가규정을 베낀 것이다. (5)각조서식은『여지도서』편찬의 기본 텍스트가『신증동국여지승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57] (6)책의 수는 각 고을에서 5건을 만들어 올렸음을 보여준다.[58] 각 고을에서는 중앙에 올려 보낼 3건(어람・홍문관・성균관), 감영에 비치할 2건을 만들어 감영에 올려 보냈다. 현전하는『여지도서』가 일률적으로 제책하여 재단한 상태인 것을 보면, 감영에서 중앙 정부로 상송할 때에도 장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영에서는 감영에서 보관할 2건을 나름의 원칙을 세워 장정하였다.[59]

3. 신설항목의 유래

1) 조선초기의 지리지

조선 건국 후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문물제도의 정비, 국가 통치 자료의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지리지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60] 제1차

---

56)『헌산지』營關內 各條定式. 이재두, 앞의 글, 2017, 261-263면; 황윤석의 기록에 의하면, 1760년(영조 36) 2년 만에 감영을 거쳐 다시 내려온 홍문관 공문에는 각 지방에서 작성할 범례와 목록이 일일이 지정되었다. 더구나 인물에 수록될 수 있는 범위조차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배우성, 앞의 책, 137면.

57) 김백철은『여지도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본문의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서두와 말미에 行을 내려서 18세기 대동・균역의 개혁성과 및 鎭管체제의 복구 과정을 증보의 형태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김백철, 앞의 글, 283면.

58) 1760년 예산현에서는 어람용・감영보관용・홍문관용 3종류의 읍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오산문첩』경진 6월 21일 報巡營. 배우성, 앞의 책, 143면.

5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이 소장하고 있는『경산하양읍지』(951.98 경산하)를 보면, 경산현과 하양현 읍지를 한 책으로 묶었으나,『여지도서』에는 경산현은 42책, 하양현은 46책에 실려 있다.『의령남해읍지』(951.98 의령남) 또한 남해현은『여지도서』47책에 수록하였다. 의령현편은 분실하여 현전하는『여지도서』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재두, 앞의 글, 2018a, 105면.

60) 아래의 내용은 정두희,「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Ⅰ)」,『역사학보』제69집, 역사학회, 1976a,

사업(1424-1432)은 1424년(세종 6)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61] 1432년(세종 14) 1월 19일 맹사성 등이 새로 편찬한 『팔도지리지』를 진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62] 『경상도지리지』(1425, 세종 7)는 『팔도지리지』 편찬사업 추진과정에서 만든 도 단위의 지리지이며, 『세종실록지리지』(1454, 단종 2)는 『팔도지리지』(1432)에 양계 지방의 주진 설치 기록만을 보완한 『세종실록』 부록이다.[63]

제2차 사업(1468-1478)은 1455년(세조 1) 8월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에게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였으나,[64] 실질적으로는 1468년(예종 즉위년) 겨울부터 시작하여 1478년(성종 9) 1월에야 지리지를 완성하였다.[65]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예종 1)는 제2차 사업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66] 그러나 속찬한 『팔도지리지』(1478)는 성종대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66-70면;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II, 완)」, 『역사학보』 제70집, 역사학회, 1976b, 89-90면, 104-105면; 양보경, 앞의 글, 1987, 6-7면을 참고하여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사업을 1, 2, 3차로 구분하면서 일부 내용을 바로 잡았다.

61) 「경상도지리지서」, 『경상도지리지』. "皇明 永樂二十二年 甲辰 冬十有二月 朔日 壬寅 春秋館受敎 (…)"

62)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1432) 1월 19일 기묘. "領春秋館事孟思誠, 監館事權軫, 同知館事尹淮・申檣等進新撰八道地理志, 上曰予將覽焉."

63) 『세종실록』 권143 地理志. "東國地志, 略在三國史, 他無可稽. 我世宗大王命尹淮申檣等, 考州郡沿革, 乃撰是書, 歲壬子書成. 厥後離合不一, 特擧兩界新設州鎭, 續附于其道之末云."

64)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1455) 8월 12일 을묘.

65)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1482) 2월 13일 임자; 그동안 학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세종대에 새로 편찬한 전국 지리지인 『팔도지리지』를 성종대의 『팔도지리지』와 구분하여 '『신찬팔도지리지』'라 불러 왔다. 그러나 광복 이후 몇몇 교과서를 보면, 세종대에 편찬한 지리지도 모두 『팔도지리지』라 하였다. 김성칠, 『조선역사』, 정음사, 1947, 69면; 이병도, 『고등학교 역사 국사』, 일조각, 1956, 116면; 최남선, 『우리나라역사』, 동국문화사, 1955, 199면; 최남선, 『국사』, 민중서관, 1962, 91면, 95면; 葛城末治는 '세종실록지리지 해설'과 '교정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해설'에서 실록지리지가 新撰八道地理志를 修補整備하여 撰纂한 것이라 하였다. 葛城末治, 「해설」,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총독부중추원, 1937, 7면; 「해설」, 『교정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조선총독부중추원, 1938, 2면. 1944년 홍이섭은 세종 14년의 실록 기록[領春秋館事孟思誠・監館事權軫・同知館事尹淮, 申檣等進新撰八道地理志—두 책 모두 밑줄 친 '新'자를 빠뜨림: 필자 주]을 들어 단 한 차례 '신찬팔도지리지'라고 부르기는 했으나, 한 면에서도 여러 차례나 '팔도지리지'라 하였다. 洪以燮, 『朝鮮科學史』, 三省堂, 1944, 294-295면; 『朝鮮科學史』, 正音社, 1946, 183면. '신찬'이라는 말은 책을 새로 펴냈다는 의미이며, 책 제목으로 할 경우 이전에 있던 책을 새로 펴낸다는 '증보'의 어감이 들기도 한다. 『삼강행실도』의 경우처럼, '세종대의 『팔도지리지』', '성종대의 『팔도지리지』'라 부르거나, '『팔도지리지』(1432)', '『팔도지리지』(1478)'처럼 괄호 안에 편찬시기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종 결과물이 아니었다.

제3차 사업(1476-1485)은 1476년(성종 7) 12월 17일『팔도지리지』편찬을 마무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동국여지승람』편찬사업이었다. 제3차 사업은 성종이 노사신 등에게 양성지가 편찬하고 있는 지리지에 동국문사의 시문을 모아 실으라[添載]는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하였다.[67] 노사신・서거정 등은『팔도지리지』에 시문을 추가하여 1481년(성종 12) 초고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곧『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김종직 등이 수정・보충하여 1485년(성종 16)『동국여지승람』을 간행하였다. 성종 묘지문[誌文]에는 성종이 지리지를 편찬하게 하여 이름을『동국여지승람』이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68]『동국여지승람』은 조선초기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완성으로, 조선후기 각 고을 읍지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다음은『여지도서』신설항목과 조선초기 관찬 지리지의 관련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 [표 3]『여지도서』신설항목과 조선초기 관찬 지리지의 관련항목 비교

여지도서 (1760)	동국여지승람 (1485, 1531)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세종실록지리지 (1432, 1454)		경상도지리지(1425)	
			도별	고을별	도별	고을별
도별・고을별 '지도'	전국 및 도별 '지도'					
①방리						
			⑦호구	⑦호구	⑬호구	④호구
②도로						
⑦관직	①관원		①관원	①관원		
⑬공해	⑪궁실	⑧강무장				

66)『榮州誌』(취사본, 1625) 序文이나 古蹟의 泥谷部曲・奈小部曲에는 鄭從韶가 군수로 있을 때,『군지』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奉香里 항목에 정종소가 成化戊子(1468)에 지은 濟民樓記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예종 1)를 편찬할 무렵에 만든 읍지이다.『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이 두 부곡이 보이지 않지만, 지리지의 속찬 명령에 따라 저본으로 작성한 읍지였다. 동양대 전통문화연구소,『국역영주삼읍지』, 영주시 소수박물관, 2012, 35면, 45면, 123-124면; 양보경,「조선 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국사관논총』제8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8, 47면 주 7).

67)『성종실록』권74 성종 7년(1476) 12월 17일 병술.

68)「성종 대왕 묘지문[誌文]」,『성종실록』권297. "撰地理誌, 名曰東國輿地勝覽."

⑭제언		⑥제언		㉖대제		⑨제언
⑮창고	⑮창고					
⑲목장		⑪목장		㉒목장	⑥목장	
⑳관애		㉕험조요해		㉓요해, 험조	④요해처	
㉗한전			⑨간전	⑭간전	⑬전결	
㉘수전						
㉙진공		⑤공세 ⑲세공(정철)	⑪토공		⑤상공	⑦공부
㉚조적						
㉛전세			⑩부세 ⑲조운		⑫조운	⑦공부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㉟군병			⑧군정 ⑭군관 ⑮수군 ⑯병선 ⑰선군	⑧군정	⑦내상진 ⑧수영 ⑬군정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등에는 『여지도서』에서 중시한 ⑭제언, ⑲목장 등을 고을별로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⑳관애는 세 지리지 모두에 '험조요해(險阻要害)' 등의 용어로 하였으며, '빙혈, 풍혈, 제도(諸島), 진산(鎭山), 염부(鹽釜), 염정(鹽井), 지택(池澤), 도진(渡津), 어량(漁梁), 해도(海島)' 등도 수록항목에는 별도의 항목을 두어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들 항목을 모두 산천 항목에 통합하여 기술하였다.[69] 특히 제언의 경우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대제(大堤) 위주였고,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는 모든 제언을 망라하면서 관개 면적까지 명시하였다.

『경상도지리지』에는 전결과 군정을 도 단위로만 수록하였고, 부세 관련항목인 상공(常貢)과 조운은 도 단위로, 공부(貢賦)는 고을별로 실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간전과 군정을 도별·고을별로 모두 수록하였지만, 부세·공물·조운은 도 단위만 싣고, 고을별로는 생략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

69) 이건식, 앞의 글, 116면.

에는 공세(貢稅)와 세공(歲貢, 正鐵)이 실려 있다.

『여지도서』의 체재가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체재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70] 오히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일부 항목를 제외하면서 부세 관련 정보를 보완한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마저도 『여지도서』 경상도 편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항목 전체를 반영하였다. 『여지도서』의 ⑥성지, ⑫단묘, ⑯물산, ㉓사찰, ㉕진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⑧성곽, ⑱사묘, ⑦토산, ⑰불우, ⑨관방의 항목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이 다섯 항목이름은 개별읍지의 양식을 단순히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고을마다 호구・대제・목장・요해험조・간전・군정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세종실록지리지』가 『여지도서』 신설항목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부세정보인 ㉙진공과 ㉛전세 해당 항목인 토공・부세・조운을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도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①방리(호구 제외), ②도로, ⑬공해, ⑮창고, ㉙진공,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관련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고을 단위로 전혀 수록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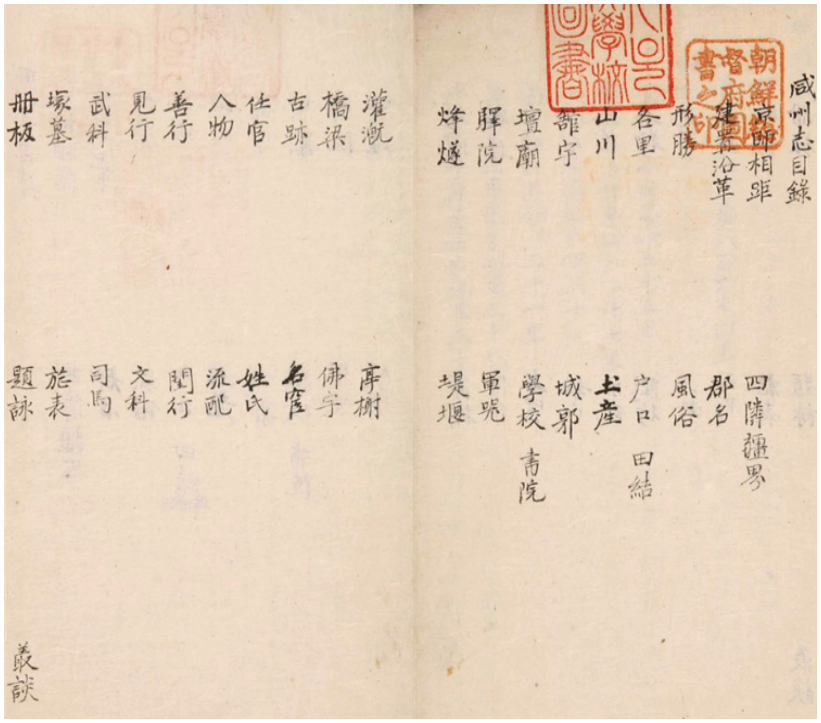
2) 조선중기의 사찬읍지

16세기 후반부터는 지리지 편찬의 흐름이 변화하였다. 국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지방 행정 단위인 부목군현 등 고을 단위로 지방관과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지리지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사찬읍지이다.[72] 조선 중기의 사찬읍

70) 변주승은 『여지도서』가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체재에 가깝다고 단정하였다. 최영희의 해설과 정두희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별로 수록하였던 부세정보를 고을별로 수록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변주승, 앞의 글, 442-443면 참고.

71) 김백철은 『여지도서』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증보한 군사 및 부세 등 상당수의 항목은 본래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편성하였던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어 세종대는 국가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고, 성종대는 이미 확립된 국가의 토대 위에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으며, 영조대는 통치정보를 중심으로 『여지도서』를 편찬하였고, 부족한 문화면은 『東國文獻備考』(영조 46, 1770)로 보완하였다고 하였다. 김백철, 앞의 글, 284면.

지들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읍지 편찬은 지방관과 재지사족의 협조 속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방의 공론을 통한 여과과정을 거쳤다.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나 객관성 면에서도 훌륭하였다.[73] 16, 17세기의 사찬읍지들은 지방통치 자료, 향촌 질서의 재편과 안정, 재지 세력의 현양, 군현의 역사지리서, 군사·방어의 강화와 대비, 교화의 수단 등 각 고을의 특성을 잘 나타냈다.[74]


咸州志目錄
京師相距
建置沿革
形勝
各里
山川
舘宇
壇廟
驛院
烽燧
四隣疆界
郡名
風俗
戶口 田結
土產
城郭
學校 書院
軍器
堤堰
灌漑
橋梁
古跡
仕官
人物
善行
見行
武科
塚墓
冊板
庠榭
佛宇
名宦
姓氏
流配
閏行
文科
司馬
旌表
題詠
叢談

『함주지』(규10985) 함주지 목록

72) 양보경, 앞의 글, 1998, 47면; 중앙 정부나 지방 감영이 주도하여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편찬한 읍지인 관찬읍지와 고을 단위에서 지방관과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편찬한 읍지인 사찬읍지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도별읍지를 고을별로 분리하여 분석해보면, 관찬읍지가 압도적이고 사찬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73) 같은 글, 43-44면.

74) 같은 글, 1998, 70-71면.

조선중기 사찬읍지는 중앙 정부에서 관료생활을 하던 사족 세력들이나 지방관이 자신의 연고지나 부임지의 읍지 편찬을 주도하였다. 편찬과정에서는 다수의 재지사족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지사족의 입장을 온전히 관철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통치정보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사찬읍지에 방리·호구·전결·부세·군병 관련항목이 보이는 것은 지방관이 읍지 편찬을 주도한 결과이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재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찬읍지 수록항목은 관찬읍지인 『여지도서』의 항목신설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여지도서』 신설항목과 사찬읍지 수록항목을 비교한 표이다.[75]

■ [표 4] 『여지도서』 신설항목과 사찬읍지 수록항목 비교

여지도서 (1760)	동국여지지 (1656)	포산지 (1635)	진양지 (1625)	승평지 (1618)	상산지 (1617)	영가지 (1602)	평양지 (1590)	함주지 (1587)
①방리 ①1호구		④掌面 ㉑호구	⑩각리 ⑪호구	㊽장면 ㉖호구	⑭호구	⑩각리 ⑪호구	⑤部坊 ㉖호구	⑦각리 ⑧호구
②도로						㉗도로		
⑦관직	③1관원	②관원 ㉒무반 ㊱관속 ㊲향임 ㉟공장	⑥관원	③관원 ㊺工匠 ㊻관속 ㊼향임	㉓목사 ㉔관관 ㉕文提督 ㉖무제독			
⑬공해	⑫궁실2 ⑩공서	⑫관사	⑯관우	⑰관사	㉗객관 ㉘州衙	⑮관우	⑫공서	⑫관우

75) 사찬읍지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박인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 대한 일고찰」, 『청계사학』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사학회, 1989, 37-106면;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제17호, 전북사학회, 1994, 19-52면(『함주지』·『진양지』·『운창지』 분석); 양보경, 앞의 글, 1998, 43-71면; 김순희, 「오운과 『함주지』」, 『서지학연구』 제29집, 한국서지학회, 2004, 475-498면;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제2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173-218면; 금중현, 「구당 조목수의 상산지 초책 고」, 『상주문화』 제23집, 상주문화원, 2013, 167-264면; 강문식, 「『진양지』의 내용적 특징과 그 의미」, 『부사 성여신』, 예문서원, 2015, 315-343면;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8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a, 271-314면; 이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제124집, 대구사학회, 2016, 177-206면; 임세권, 「영가지, 안동의 가장 오래된 종합 인문지리지」, 『안동학』 제1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27-48면; 이은주, 「『평양지』·『평양속지』 해설」, 『평양을 담다』, 소명출판, 2016, 11-31면.

⑭제언	⑦산천	㉚제언	㉕제언 ㉖관개	㊱제언		㉘제언 ㉙관개		⑲제언 ⑳관개
⑮창고	⑬창고	㉘창고	㉒군기	㉞창고			⑬倉儲	⑰군기
⑲목장	⑦산천목장			㊲목장				
⑳관애	⑯關梁관애							
㉗한전	①한전	㉔전결	⑫전결	㉚전결			㉑토전	⑨전결
㉘수전	②수전	㉙관전		㉟官田				
㉙진공		㉖진상		㉜진상			㉒공부	
㉚조적								
㉛전세		㉕조세		㉛조세	⑪전부			
㉜대동		㉗공물		㉝공물				
㉝균세		㉝요역		㊸요역	⑯요역			
㉞봉름								
㉟군병		㉓군정		㉙군정	⑮군병		⑰兵制	

『여지도서』의 호구와 공해 관련 항목은 『함주지』에 수록한 이래 모든 사찬읍지가 따랐다. 방리는 『상산지』에서 누락하였고, 제언은 『평양지』와 『상산지』에서 누락하였으나, 『함주지』·『영가지』·『진양지』에서는 관개면적까지 수록하였다. 창고 관련 항목은 『함주지』와 『진양지』에는 군기, 『평양지』에는 창저, 『승평지』와 『포산지』에는 창고로 설정하였다. 『영가지』와 『상산지』는 창고와 전결 관련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부세와 군병 관련 항목은 『평양지』·『상산지』·『승평지』·『포산지』에 수록하였다. 관직 관련 항목은 『상산지』·『승평지』·『포산지』에서 풍부해졌으며, 도로는 『영가지』에, 목장과 관애는 『승평지』에 보인다. 유형원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동국여지지』에는 창고를 설정하였고, 공해는 궁실과 공서에, 목장은 산천에, 관애는 관량에 수록하였다. 한전과 수전은 항목이름만 설정해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여지도서』 신설항목은 사찬읍지 가운데서도 순천부사 이수광의 『승평지』와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수록항목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다. 이수광과 김세렴은 모두 북인계 남인이었다.[76]

76) 정호훈, 「17세기 전반 경기남인의 세계관과 정치론」, 『동방학지』 제111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1, 202-207면.

3) 숙종대『여지승람』수정증보 사업

조선후기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은 17세기 말 숙종대부터이다. 숙종대에는 세 차례나『여지승람』수정증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1679년(숙종 5) 숙종은 병조판서 김석주에게『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 박신규(朴信圭, 1679-1680 재임)는『동국여지승람』경상도 편을 속성(續成)하였다. 제2차는 20년 뒤인 1699년(숙종 25) 좌의정 최석정의 건의에 따라 추진하였다. 그는 박신규의『경상도읍지』와 유득일(兪得一, 1697-1698 재임)의『강원도읍지』등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1700년(숙종 26) 3월에는 대부분 중앙에서 수합하였을 정도였으나 개정작업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77] 영의정이던 최석정이 파직, 유배됨에 따라, 1701년 11월 대제학 이여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을 중지하였다.[78] 제3차 사업은 최석정이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하면서 1706년 2월 재개하였다.[79] 1707년 10월에는『증보여지승람』에 시문을 수록하자는 최석정의 건의를 받아들였다.[80]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증보여지승람』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북관지(北關誌)』(고4790-18, 규1261)는 함경도 10개 고을의 읍지를 수록하고 있다. 1책 경성부, 길주(목), 명천부, 부령(부), 2책 회령부, 무산부, 종성부, 온성부, 경원부, 경흥부, '발문' 순이다. 이 읍지로 숙종대 제1차『여지승람』수정증보 사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권말의 신여철(申汝哲, 1634-1701) 발문에서는 계유(1693, 숙종 19)에 이단하(李端夏, 1625-1689)가 북평사(北評事)로 있으면서 완성하였는데, 이단하의 선친 이식(李植, 1584-1647)이 이미 원고의 저본을 만들어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경성(鏡城) 판관 이삼석(李三碩)의 발문에도 이식이 북로(北路)의 사실(事實)과 형요(形要)를 가지고『북관지』를 쓰다가 탈고를 마치지 못

77) 이상은 양보경, 앞의 글, 1987, 96-97면; 배우성, 앞의 책, 127-129면.
78)『숙종실록』권35 숙종 27년(1701) 11월 21일 갑진;『승정원일기』숙종 27년 11월 21일 갑진.
79)『숙종실록』권43 숙종 32년(1706) 2월 17일 병오.
80)『숙종실록』권45 숙종 33년(1707) 10월 1일 기묘;『승정원일기』숙종 33년 10월 1일 기묘.

한 것을 이단하가 완성했고, 신여철이 30여 년 후에 증수하였다고 전한다. 발문에는 대장군 신여철이 북관에 있을 때 간행했고, 이를 계승하여 중수(重修)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신여철의 후손 신대겸(申大謙)이 갑진년(1784, 정조 8)에 쓴 것이다. 발문을 근거로 편찬시기를 1784년으로 추정하기도 하나,[81] 이때는 훼손된 목판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정도였다.

『북관지』 목판본에는 1693년 이전까지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각 고을의 관안에 수록한 마지막 인물을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해 보면, 권순(權詢)이 경성부 북우후(北虞侯), 이상전(李尙佺)이 종성부사, 김일기(金一夔)가 부령부사, 김숙(金俶)이 길주목사로 부임한 시기는 모두 1692년(임신)이다.[82] 회령부의 이홍술(李弘述)에는 '임신이길주목사래(壬申以吉州牧使來)'라 세주하였는데 길주와 회령의 겸무였다. 이홍술은 김숙이 부임하기 이전인 1691년(숙종 17) 길주목사로 부임하였다.[83] 무산부는 당시 읍민 중에서 지아비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는데 1692년 무산현감으로는 이천근(李天根)이 부임하였다.[84]

『북관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①건치연혁, ②군명, ③관원, ④강계, ⑤산천, ⑥관방, ⑦해진, ⑧성곽, ⑨봉수, ⑩관우, ⑪학교, ⑫이사, ⑬역원, ⑭사묘, ⑮불우, ⑯고적, ⑰성씨, ⑱인물, ⑲토산, ⑳풍속, ㉑관안, ㉒호액, ㉓전안, ㉔재곡, ㉕공안, ㉖진상, ㉗약재, ㉘병안, ㉙이안, ㉚천안, ㉛제영, ㉜잡기

*밑줄 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신설한 항목임.

---

81) 김백철, 「조선시대 咸鏡道 지역사 試論—奎章閣소장 地理志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51집, 2017, 15면 〈표 4〉, 26면 〈표 7〉. 같은 책, 15면 〈표 3〉에서는 『여지도서』에는 북청부의 지도가 없다고 하였으나, 영인본에는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같은 책, 38면 〈표 11〉에서도 회령에 해진을 수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회령에는 6개의 해진을 수록하였다. 목판본에서는 다른 항목처럼 첫 행으로 올려 구분하였으나, 필사본에서는 한 자 내려 필사하여 관방의 수록지명처럼 보인다.

82)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1월 20일 경오. "北虞侯 權詢."; 1월 30일 경진. "下直 (…) 鍾城府使李尙香全."; 7월 24일 신미. "富寧府使 金一夔"; 10월 5일 경진. "金俶爲吉州牧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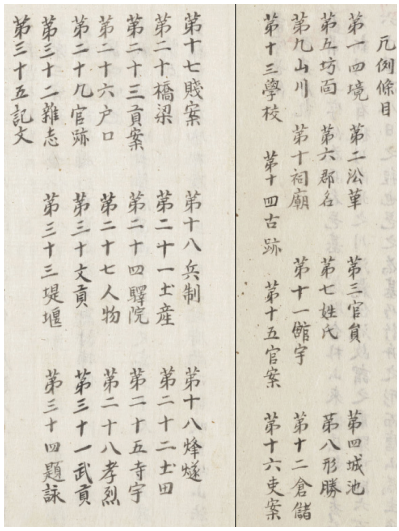
83) 『승정원일기』 숙종 17년 윤7월 13일 병인. "下直 吉州牧使李弘述."

84)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1월 17일 정묘. "李天根爲茂山縣監."

이 가운데, 『여지도서』의 방리는 『북관지』의 ⑫이사, 방리의 호구는 ㉒호액, 도로는 ④강계, 관직은 ③관원・㉙이안・㉚천안, 공해는 ⑩관우, 관애는 ⑦해진, 한전과 수전은 ㉓전안, 진공은 ㉕공안・㉖진상・㉗약재, 조적은 ㉔재곡, 군병은 ㉘병안 관련 항목이며, 『여지도서』의 제언, 창고, 목장, 전세, 대동, 균세, 봉름은 마땅히 대응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 평안도 숙천부 읍지인 『숙녕읍지(肅寧邑誌)』(규7489)는 숙종대의 제2차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 당시 수록항목을 추정하게 해준다. 편찬시기는 관안의 마지막 인물인 양익명(梁益命) 재임기라기보다는 후임자인 조이건(趙以健) 때이다.[85] 조이건의 후임자는 이두천(李斗天)으로 1700년 8월에 부임하였다.[86] 이 읍지의 범례조목(凡例條目)은 35개에 이르는 항목이름 앞에 번호를 붙여 나열하였다. 범례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경, ②연혁, ③관원, ④성지, ⑤방면, ⑥군명, ⑦성씨, ⑧형승, ⑨산천, ⑩사묘, ⑪관우, ⑫창저, ⑬학교, ⑭고적, ⑮관안, ⑯이안, ⑰천안, ⑱병제, ⑲봉수, ⑳교량, ㉑토산, ㉒토전(土田), ㉓공안(貢案), ㉔역원, ㉕사우(寺宇), ㉖호구, ㉗인물, ㉘효열, ㉙관적(官跡), ㉚문공(文貢), ㉛무공(武貢), ㉜잡지(雜志), ㉝제언, ㉞제영, ㉟기문(記文)


凡例條目
第一四境 第二沿革 第三官員 第四城池
第五坊面 第六郡名 第七姓氏 第八形勝
第九山川 第十祠廟 第十一館宇 第十二倉儲
第十三學校 第十四古跡 第十五官案 第十六吏案
第十七賤案 第十八兵制 第十八烽燧
第二十橋梁 第二十一土産 第二十二土田
第二十三貢案 第二十四驛院 第二十五寺宇
第二十六戶口 第二十七人物 第二十八孝烈
第二十九官跡 第三十文貢 第三十一武貢
第三十二雜志 第三十三堤堰 第三十四題詠
第三十五記文

『숙녕읍지』 범례조목

이 가운데, 『여지도서』의 방리는 『숙녕읍지』의 ⑤방면, 방리의 호구는 ㉖호구, 도로는 ①사경, 관직은 ③관원・⑯이안・⑰천안, 공해는 ⑪관우, 제언은 ㉝제언, 창고와 조적은 ⑫창저, 한전과 수전은 ㉒토전, 진공은 ㉓공안, 군병은 ⑱병제 관련항목이며, 목장, 관애, 전세, 대동, 균세, 봉름은 마땅히 대

85)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1월 25일 신축. "趙以健爲肅川府使."
86)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7월 12일 계묘. "李斗天爲爲肅川府使."

응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

이처럼 『여지도서』 신설항목은 17세기 말 추진한 숙종대의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 『여지도서』의 ①방리, ①1호구, ②도로,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⑳관애, ㉗한전, ㉘수전, ㉙진공, ㉚조적, ㉟군병의 신설은 이미 숙종대의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 당시 개발한 항목이다. 그렇다면, 숙종대 이후 『여지도서』 편찬 당시의 신설항목은 ⑲목장,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름 정도가 될 것이다. 『여지도서』에서는 『북관지』의 관안, 잡기, 『숙녕읍지』의 관안, 관적(명환), 문공, 무공, 잡지, 기문을 제외시켰다. 관안과 명환(관적)은 환적, 문공(문과)은 과거 항목으로 『경상도읍지』(1768)에서,[87] 무공(무과)은 생원・진사와 함께 과환으로 『호남읍지』(1793)에서 수용하였다.[88]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사찬읍지와 숙종대 읍지 편찬사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4. 맺음말

『여지도서』는 경진년(1760, 영조 36)에 홍문관에서 성책한 미완의 전국읍지이다. 경진년은 이 책의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의 하한이다. 각 고을에서는 홍문관범례에 따라 읍지를 편찬한 뒤 성책하지 않은 상태로 감영에 보냈으며, 감영 또한 성책하지 않은 상태로 홍문관에 보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 사묘, 토산, 불우, 관방 항목이 『여지도서』에서는 각각 성지, 단묘, 물산, 사찰, 진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다섯 항목의 이름은 읍지 양식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및 도별 지도만 있었지만, 『여지도서』는 도 단위만이 아니라 개별 고을마다 채색지도를 수록하였다. 공해와 창고는 모든 고을에 설정한 항목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87) 이재두, 앞의 글, 2018b, 260-263면.
88) 이재두,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84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c, 267-268면.

공해가 없었으며, 72개 고을 정도에 궁실을 두었고, 창고는 13개 고을에만 있었다. 관직은 건치연혁, 제언・목장・관애는 산천에서 분리하여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서두의 방리(호구 포함)・도로, 말미의 한전,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 군병 11개 항목은 행정・재정・군사 관련 내용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신설항목이며, 다른 항목과 달리 몇 자씩 내려서 기록하였다. 경상도 편을 제외하고는 궁실, 학교, 총묘, 명환, 제영 5개 항목을 제외시켰다. 『여지도서』 경상도 편의 방리는 면별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만을 적고 고을별 호구만을 파악하여 방리의 분량을 과감히 줄였다. 함경도 편에는 학교와 발참을 두었다.

『여지도서』의 신설항목은 조선초기의 관찬 지리지보다는 『함주지』를 비롯한 사찬읍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북인계 남인인 순천부사 이수광의 『승평지』와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는 『여지도서』의 항목 신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숙종대에 편찬한 『북관지』나 『숙녕읍지』 등에서 신설한 항목을 계승하면서 일부를 제외하였고,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사찬읍지와 숙종대에 추진한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전국 단위의 관찬읍지라 하겠다.

▮ [부표] 각 지리지의 수록항목과 수록순서

『慶尙道地理志』(1425) 고을별 수록 항목(요약)	①沿革, ②屬縣, 鄕, 所, 部曲, 驛, ③四方界域, 名山大川, 犬牙相入, 越境處, 鎭山, ④戶口, ⑤土姓 從仕, 德藝, 功業 出衆者, 靈異之跡, ⑥姓氏, ⑦貢賦, 土産, 藥材, 土宜耕種, ⑧界首官所領郡縣, ⑨鹽盆, 鹽井, 大堤堰, ⑩煙臺烽火, ⑪佛宇, ⑫行祭所
각 도별 수록 항목(요약)	①沿革, ②州府郡縣의 離合, ③府牧郡縣名, ④名山大川, 四方界域, 險阻關防要害, ⑤常貢, ⑥山城, 邑城, 溫泉(溫井), 氷穴, 風穴, 木柵, 牧場, 鐵場, ⑦道內廂, 各鎭, ⑧水營, ⑨陵寢, 祠廟, 名賢墓, ⑩土地, 水泉, 風氣, 民俗, ⑪諸島, ⑫租稅, 漕運, ⑬戶口, 軍丁, 田地, 稼庫, 風俗
『世宗實錄地理志』(1432, 1454) 고을별 수록항목	①官員, ②建置沿革, ③別號, ④山川, ⑤四境, ⑥陵寢, ⑦戶口, ⑧軍丁, ⑨土姓, ⑩人物, ⑪土質, ⑫氣候, ⑬風俗, ⑭墾田, ⑮土宜, ⑯土貢, ⑰藥材, ⑱土産, 鹽所, 魚梁, 磁器所, 陶器所, ⑲城郭, 木柵, ⑳樓亭, ㉑站, 驛, ㉒牧場, ㉓要害, 險阻, ㉔關防, ㉕烽火, ㉖大堤, ㉗寺刹, ㉘津, 渡, 溫泉, 風穴, 氷穴, 靈異, ㉙越境處, ㉚所領 *⑥1文廟는 廣州牧에만 자세히 적고 다른 고을은 생략함.
각 도별 수록항목	①官員, ②建置沿革, ③四境, ④所管, ⑤名山, ⑥大川, ⑦戶口, ⑧軍丁, ⑨墾田, ⑩賦稅, ⑪土貢, ⑫藥材, ⑬種養藥材, ⑭軍官, ⑮水軍, ⑯兵船, ⑰船軍, ⑱站驛, ⑲漕運
『慶尙道續撰地理誌』 地理誌續撰事目(1469) (요약)	①沿革, ②土姓名賢, ③屬縣來屬, 守令名賢, ④鄕所部曲, ⑤貢稅, 漕運, ⑥堤堰池澤灌溉, ⑦鹽盆, ⑧講武場, ⑨烟臺烽火, ⑩站驛, ⑪牧場, ⑫陵寢, 祠宇, 名賢祠墓, 旌表門閭, ⑬嶺峴, ⑭津渡, 橋梁, ⑮程途, ⑯種養藥材, ⑰魚梁, ⑱陶瓷器所, ⑲金銀玉銅鉛鐵 産出處, 貢鐵, ⑳邑城, 山城, 行城, ㉑關防, 船隻, 軍丁, ㉒樓臺, 樓題, ㉓僧寺, ㉔院宇 ㉕險阻要害, ㉖緊關地名, ㉗海島, ㉘兩界節制使 本營建置沿革, ㉙兩界沿江 各鎭 野人部落
『新增東國輿地勝覽』 (1485, 1531)	'疆域(疆界)', ①建置沿革(屬縣, 鎭管, 官員, 土官 포함), ②郡名, ③姓氏, ④風俗, ⑤形勝, ⑥山川, ⑦土産, ⑧城郭, ⑨關防, ⑩烽燧, ⑪宮室, ⑫樓亭, ⑬學校, ⑭驛院, ⑮倉庫, ⑯橋梁, ⑰佛宇, ⑱祠廟, ⑲陵墓(陵寢, 塚墓 포함), ⑳古蹟, ㉑名宦, ㉒人物(寓居, 流寓, 孝子, 孝女, 烈女 포함), ㉓題詠
『咸州誌』 (1587, 함안)	咸州誌目錄, ①京師相距, ②四隣疆界, ③建置沿革, ④郡名, ⑤形勝, ⑥風俗, ⑦各里, ⑧戶口, ⑨田結, ⑩山川, ⑪土産, ⑫館宇, ⑬城郭, ⑭壇廟, ⑮學校, ⑯驛院, ⑰軍器, ⑱烽燧, ⑲堤堰, ⑳灌溉, ㉑亭榭, ㉒橋梁, ㉓佛宇, ㉔古蹟, ㉕任官, ㉖名宦, ㉗姓氏, ㉘人物, ㉙寓居, ㉚流配, ㉛善行, ㉜閨行, ㉝見行, ㉞文科, ㉟武科, ㊱司馬, ㊲塚墓, ㊳旌表, ㊴册板, ㊵題詠, ㊶叢談
『平壤志』 (1590, 평양)	①疆域, ②分野, ③沿革, ④城池, ⑤部坊, ⑥郡名, ⑦風俗, ⑧形勝, ⑨山川, ⑩樓亭, ⑪祠墓, ⑫公署, ⑬倉儲, ⑭學校, ⑮古蹟, ⑯職役, ⑰兵制, ⑱驛遞, ⑲橋梁, ⑳土産, ㉑土田, ㉒貢賦, ㉓教坊, ㉔院亭, ㉕佛寺, ㉖戶口, ㉗人物, ㉘孝烈, ㉙科貢, ㉚宦蹟, ㉛古事, ㉜文談, ㉝神異, ㉞雜志, ㉟詩, ㊱文
『永嘉誌』 (1602, 안동)	序, 地圖(本府圖, 臨河縣圖, 吉安縣圖, 甘泉縣圖, 奈城縣圖, 一直縣圖, 豊山縣圖, 皆舟部曲圖, 春陽縣圖, 小川部曲圖, 才山縣圖), 目錄, 卷之一 ①沿革, ②邑號, ③各縣沿革, ④疆域, ⑤鎭管, ⑥界首官所屬, ⑦官員, ⑧形勝, ⑨風俗, ⑩各里, ⑪戶口, 卷之二 ⑫山川, ⑬土品, ⑭土産, 卷之三 ⑮館宇, ⑯樓亭, ⑰城郭, 卷之四 ⑱鄕校, ⑲壇廟, ⑳書院, ㉑書堂, 卷之五 ㉒鄕射堂, ㉓鄕規, ㉔軍器, ㉕驛院, ㉖烽燧, ㉗道路, ㉘堤堰, ㉙灌溉, ㉚津渡, ㉛橋梁, ㉜池塘, ㉝林藪, ㉞匠店, ㉟場市,

	卷之六 ㊱古蹟, ㊲佛宇, ㊳古塔, ㊴名宦, ㊵任官, ㊶姓氏, ㊷人物, ㊸流寓, ㊺寓居, ㊻善行, ㊼閨行, ㊽見行, ㊾孝子, ㊿烈女, 卷之八 51塚墓, 52叢談
『商山誌』 (1617, 상주)	商山誌 卷之一 目錄, (1)輿地(①沿革, ②疆域, ③山川, ④城池, ⑤驛院, ⑥橋梁, ⑦姓氏, ⑧風俗, ⑨烽燧, ⑩津渡), (2)貢賦(⑪田賦, ⑫土貢, ⑬土産, ⑭戶口, ⑮軍兵, ⑯徭役), (3)學校(⑰鄕校, ⑱書院, ⑲學制, ⑳學田), (4)秩祀(㉑壇壝, ㉒廟制), (5)官制(㉓牧使, ㉔判官, ㉕文提督, ㉖武提督), (6)公署(㉗客館, ㉘州衙, ㉙留鄕所, ㉚醫局), (7)㉛名宦, (8)人物(㉜文官, ㉝武擧, ㉞蔭叙, ㉟恩錫, ㊱孝烈), (9)古蹟(㊲古都, ㊳古縣, ㊴山城, ㊵部曲, ㊶亭觀, ㊷寺刹), 商山誌 卷之二 (10)文翰(㊸題詠, ㊹記, ㊺序, ㊻碑文, ㊼上樑文, ㊽雜著)
『昇平志』 (1618, 순천)	①程途, ②建置, ③官員, ④鎭管, ⑤把營, ⑥邑號, ⑦姓氏, ⑧風俗, ⑨形勝, ⑩山川, ⑪土産, ⑫花木, ⑬藥材, ⑭城郭, ⑮關防, ⑯烽燧, ⑰館舍, ⑱樓亭, ⑲學校, ⑳驛院, ㉑寺刹, ㉒祠廟, ㉓古跡, ㉔屬縣, ㉕部曲, ㉖戶口, ㉗儒額, ㉘武班, ㉙軍丁, ㉚田結, ㉛租稅, ㉜進上, ㉝貢物, ㉞倉庫, ㉟官田, ㊱堤堰, ㊲牧場, ㊳雜畜, ㊴魚箭, ㊵鹽幕, ㊶場市, ㊷船隻, ㊸徭役, ㊹工匠, ㊺官屬, ㊻鄕任, ㊼掌面, ㊽書板, ㊾名宦, ㊿人物, 52寓居, 53孝子, 54烈女, 55事實, 56題詠, 57雜著
『晋陽志』 (1625, 진주)	卷之一 ①京師相距, ②四隣疆界, ③建置沿革, ④屬縣, ⑤鎭管, ⑥官員, ⑦州名, ⑧形勝, ⑨風俗, ⑩各里, ⑪戶口, ⑫田結, ⑬山川, ⑭林藪, ⑮土産, ⑯館宇, ⑰城郭, ⑱壇廟, 陽志卷之二 ⑲鄕校, ⑳書院, ㉑驛院, ㉒軍器, ㉓關防, ㉔烽燧, ㉕堤堰, ㉖灌溉, ㉗亭榭, ㉘任官牧使, ㉙兵使, ㉚名宦, ㉛姓氏, ㉜人物, ㉝善行, ㉞見行, ㉟文科, ㊱武科, ㊲流配, ㊳司馬, ㊴南行, ㊵叢談, ㊶塚墓, ㊷佛宇
『苞山志』 (1635, 현풍)	①程途, ②建置沿革, ③邑號, ④掌面, ⑤姓氏, ⑥風俗, ⑦山川, ⑧土産, ⑨藥材, ⑩城郭, ⑪烽燧, ⑫館舍, ⑬樓亭, ⑭學校, ⑮驛院, ⑯寺刹, ⑰橋梁, ⑱祠廟, ⑲塚墓, ⑳古蹟, ㉑戶口, ㉒武班, ㉓軍丁, ㉔田結, ㉕租稅, ㉖進上, ㉗工物大同前, ㉘倉庫, ㉙官田, ㉚堤堰, ㉛雜畜, ㉜場市, ㉝徭役, ㉞船隻, ㉟工匠, ㊱官屬, ㊲鄕任, ㊳名宦, ㊴人物, ㊵孝子, ㊶烈女, ㊷學規, ㊸鄕約, ㊹ '遺事'
『東國輿地志』 (1656, 전국)	'疆域', ①旱田, ②水田, ③建置沿革, ④郡名, ⑤形勝, ⑥風俗, ⑦山川, ⑧土産, ⑨城郭, ⑩公署, ⑪學校, ⑫宮室, ⑬倉庫, ⑭烽燧, ⑮郵驛, ⑯關梁, ⑰祠廟, ⑱陵墓, ⑲寺刹, ⑳古蹟, ㉑名宦, ㉒流寓, ㉓人物, ㉔烈女
『北關誌』 (1693, 함북)	①建置沿革, ②郡名, ③官員, ④疆界, ⑤山川, ⑥關防, ⑦海津, ⑧城郭, ⑨烽燧, ⑩館宇, ⑪學校, ⑫里社, ⑬驛院, ⑭祠廟, ⑮佛宇, ⑯古蹟, ⑰姓氏, ⑱人物, ⑲土産, ⑳風俗, ㉑官案, ㉒戶額, ㉓田案, ㉔財穀, ㉕貢案, ㉖進上, ㉗藥材, ㉘兵案, ㉙吏案, ㉚賤案, ㉛題詠, ㉜雜記 *밑줄 친 것은『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신설한 항목임.
『肅寧邑誌』 (1700, 숙천)	邑基序說, 凡例條目, ①四境, ②沿革, ③官員, ④城池, ⑤坊面, ⑥郡名, ⑦姓氏, ⑧形勝, ⑨山川, ⑩祠廟, ⑪館宇, ⑫倉儲, ⑬學校, ⑭古蹟, ⑮官案, ⑯吏案, ⑰賤案, ⑱兵制, ⑲烽燧, ⑳橋梁, ㉑土産, ㉒土田, ㉓貢案, ㉔驛院, ㉕寺宇, ㉖戶口, ㉗人物, ㉘孝烈, ㉙官跡, ㉚文貢, ㉛武貢, ㉜雜志, ㉝堤堰, ㉞題詠, ㉟記文
『輿地圖書』 (1760, 전국)	'地圖', '疆域', ①坊里, ②道路, ③建置沿革, ④郡名, ⑤形勝, ⑥城池, ⑦官職, ⑧山川, ⑨姓氏, ⑩風俗, ⑪陵寢, ⑪+2宮室, ⑪+1學校, ⑫壇廟, ⑫+2塚墓, ⑬公廨, ⑭堤堰, ⑮倉庫, ⑯物産, ⑰橋梁, ⑱驛院, ⑱1撥站, ⑲牧場, ⑳關阨, ㉑烽燧, ㉒樓亭, ㉓寺刹, ㉔古蹟, ㉕鎭堡, ㉕+1名宦, ㉖人物, ㉖+1題詠, ㉗旱田, ㉘水田, ㉙進貢, ㉚糶糴, ㉛田稅, ㉜大同, ㉝均稅, ㉞俸廩, ㉟軍兵 *밑줄 친 것은 일부 고을에만 개설한 항목임.

▮ 참고문헌

『경산하양읍지』(계명대 951.98 경산하),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상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권11-13(1485, 가람고귀 915.1-N659d), 『동국여지지』, 『동춘당집』,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상산지』, 『승평지』, 『영가지』, 『영주지』(취사본), 『여지도서』, 『의령남해읍지』(계명대 951.98 의령남), 『이재난고』, 『진양지』, 『평양지』, 『포산지』, 『함주지』, 『헌산지』.

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상·하, 탐구당, 1973.

강문식, 「『진양지』의 내용적 특징과 그 의미」, 『부사 성여신』, 예문서원, 2015.
금중현, 「구당 조목수의 상산지 초책 고」, 『상주문화』 제23집, 상주문화원, 2013, 167-264면.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제2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173-218면.
김백철, 「고종대 읍지의 연대분류 시론—규장각 자료의 서지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49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79-329면.
_____, 「조선시대 함경도 지역사 시론—규장각소장 지리지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51집, 2017, 1-62면.
김성칠, 『조선역사』, 정음사, 1947.
김순희, 「오운과 『함주지』」, 『서지학연구』 제29집, 한국서지학회, 2004, 475-498면.
김우철, 「『여지도서』 '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611-644면.
김지영, 「예교의 가늠자—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풍속'조의 검토」, 『규장각』 제52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39면.
김태웅,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읍사 자료 비교·활용—전라도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5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63-104면.
동양대 전통문화연구소, 『국역영주삼읍지』, 영주시 소수박물관, 2012.
박인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 대한 일고찰」, 『청계사학』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사학회, 1989, 37-106면.
_____,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 1996.
방동인, 『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2001.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제22권 4호, 일지사, 1996, 142-174면.
_____,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435-464면.
변주승 외 역주,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여지도서』 1-50, 디자인흐름, 2009.
성범중·엄형섭 역, 『역주 울산지리지』 Ⅰ,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3,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87, 1-174면.
_____, 「18세기 지리서·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응용지리』 제20호, 성신여대 한국

지리연구소, 1997, 21-42면.
_____, 「조선 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8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8, 43-71면.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적」, 『규장각』 제43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1-71면.
이건식, 「황윤석의 1775년 전국 지리지 편찬 범례의 특징 분석—1775년 무렵 홍문관의 전국 지리지 편찬 관례의 복원 시도」, 『지명학』 제14집, 한국지명학회, 2008, 101-150면.
이병도, 『고등학교 역사 국사』, 일조각, 1956.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성무, 「한국의 관찬 지리지」, 『규장각』 제6집, 서울대 규장각, 1982, 141-149면.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이 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제124집, 대구사학회, 2016, 177-206면.
이은주, 「『평양지』·『평양속지』 해설」, 『평양을 담다』, 소명출판, 2016.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제24집, 조선사연구회, 2015, 13-42면.
_____,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8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a, 271-314면.
_____, 「조선 후기 『대구읍지』 편찬과 사족의 대응—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29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b, 341-375면.
_____,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제60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퇴계연구소, 2017, 241-272면.
_____, 「『여지도서』의 누락읍지 보완과 수록순서 보정」, 『전북사학』 제54호, 전북사학회, 2018a, 103-132면.
_____,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규장각』 제53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b, 255-310면.
_____,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84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c, 255-288면.
이철성,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제25호, 고려사학회, 2006, 531-571면.
임세권, 「영가지, 안동의 가장 오래된 종합 인문지리지」, 『안동학』 제1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27-48면.
전종한,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재현과 지역지의 서술 체재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4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13-26면.
정대영, 「『기인한상량』, 19세기 초 홍희조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문화』 7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467-508면.
_____,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68집, 한국서지학회, 2016, 377-413면.
_____,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규

장각』 제5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05-127면.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Ⅰ)」, 『역사학보』 제69집, 역사학회, 1976a, 65-99면.
_____,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Ⅱ, 완)」, 『역사학보』 제70집, 역사학회, 1976b, 89-127면.
정우봉, 「조선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관북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 『고전과 해석』 제19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5, 7-32면.
정의성, 「동국여지승람의 서지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체재와 '제영'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1997, 19-33면.
정치영,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성」,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78-90면.
정호훈, 「17세기 전반 경기남인의 세계관과 정치론」, 『동방학지』 제11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191-267면.
최남선, 『우리나라역사』, 동국문화사, 1955.
_____, 『국사』, 민중서관, 1962.
최영희, 「해설」, 『여지도서』 상,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3.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제17호, 전북사학회, 1994, 19-52면.
허원영,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 『사림』 제38호, 수선사학회, 2011, 1-37면.
홍이섭, 『朝鮮科學史』, 三省堂, 1944.
_____, 『조선과학사』, 정음사, 1946.

葛城末治, 「解說」, 『世宗實錄地理志』,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_____, 「解說」, 『校訂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jw.history.go.kr/.
「여지도서」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원문자료검색」,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지리지 종합정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geo/.

【Abstract】

Year of editing, items composition, and origin of new items on *Yeojidoseo*

Lee, Jae-Doo*

Yeojidoseo is an unfinished nationwide geography that was bound by books in 1760 at the Hongmungwan. The year 1760, which is confirmed in Gyeonggi, Gangwon and Hamgyeong Province, is the latest time to be identified on the book.

Although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had only national and provincial maps, *Yeojidoseo* contained color maps for each town as well as for each province. The 11 new items, which were not included on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were recorded in two or three letters, unlike other items.

Except for Gyeongsang Province, five items were excluded such as items of school (學校), important government official (名宦), poetry (題詠), royal chamber (宮室), grave (塚墓) in other provinces.

The new items were much influenced by local *Eupji* (local gazetteer, 邑誌), including *Hamjuji*, rather than by the official geograph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Lee Soo-kwang's *Seungpyeongji* and Kim Seryeom's *Posanji*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Yeojidoseo* new items. *Yeojidoseo* is a critical response to the result of *Eupji* Compilation project during King Sukjong's reign, which was promote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Keywords: *Yeojidoseo* (輿地圖書),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新增東國輿地勝覽), *Eupji* (邑誌, local gazetteer), *Eupji* Compilation project (邑誌編纂事業), new items (新設項目).

접수일: 2018.09.29.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Yeungnam High School Teacher.